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2025. 09. 11.
쪽수 2장 / 사진자료 2장

- 배 포 : 2025. 09. 11.
- 제 공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 사업담당 : 김현정 학예연구사(031-481-7033)
- 홍보담당 : 유채린 학예연구사(031-481-7043)

“경기도미술관,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 ‘작가 워크숍’ 운영”

- ▶ 경기도미술관, 9월 21일(일), 10월 12일(일), 24일(금), 25일(토) 총 4일에 걸쳐 화랑호수 일대와 경기도미술관 1층 로비에서 개최
- ▶ “기후 위기 시대, 현대미술의 새로운 역할...함께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작가 워크숍 개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기후 위기 특별전 《기다림이 끝나는 날에도》의 참여 작가 박선민, 이지연이 진행하는 워크숍을 오는 9월 21일(일), 10월 12일(일), 24일(금), 25일(토) 총 4일에 걸쳐 운영한다.

먼저 박선민의 <높의 노래 - 사운드 스케이프>는 북보르네오 열대우림을 탐사하며 채집한 필드 사운드를 화랑 호수 일대 산책 경로에 연결한 작품이다. 관람객은 헤드셋을 착용하고 숲길과 호수와 그 주변의 생태 환경을 걸으며 경기도미술관이 위치한 화랑유원지와 인근 화랑 호수에서 자연과 내면의 감각에 고요히 귀 기울일 수 있다. 워크숍은 2025년 9월 21일, 10월 12일(일) 오전 11시, 화랑호수 일대에서 진행되며, 회차별 약 30분간 운영된다.

이지연의 <젯소리>는 버려진 연탄재를 다시 구워 도자기처럼 단단하게 만든 뒤, 물이 흐르는 수조 안에 설치하여 새로운 에너지 순환의 공간을 만든 작품으로 전시가 종료되는 주말에 전시의 주재료인 연탄을 가져가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 선순환의 실천을 이어간다. 10월 24일(금)과 25일(토) 양일 오후 4시부터 경기도미술관 1층 로비에서 협찬된 페도자기에 담아 워크숍 참여자들에게 구운 연탄을 나눠 줄 예정이다.

경기도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예술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닌, 함께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실천의 과정으로 확장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 현대미술의 역할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일정과 세부 내용은 경기도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gmoma.ggcf.kr/edus?edu_category=05)

1. 세부 일정

회차	일정	워크숍 제목	작가
1	2025년 9월 21일(일) 11:00	〈높의 노래 - 사운드 드리프팅〉 관객 참여형 몰입 사운드 스케이프	박선민
2	10월 12일(일) 11:00		
3	10월 24일(금)~25일(토) 16:00	〈젓소리〉 전시 철수 워크숍	이지연

- 세부일정과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31-481-7033, 김현정 학예연구사(hyunjeungkim@ggcf.or.kr)

2. 이미지



필드사운드 채집 중인 박선민 작가,
작가 제공

전시 작품 해설 중인 이지연 작가
(가장 왼쪽), 경기도미술관 제공